

전자정부 정보보호(eGISEC) 컨퍼런스

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방안

주식회사 스페로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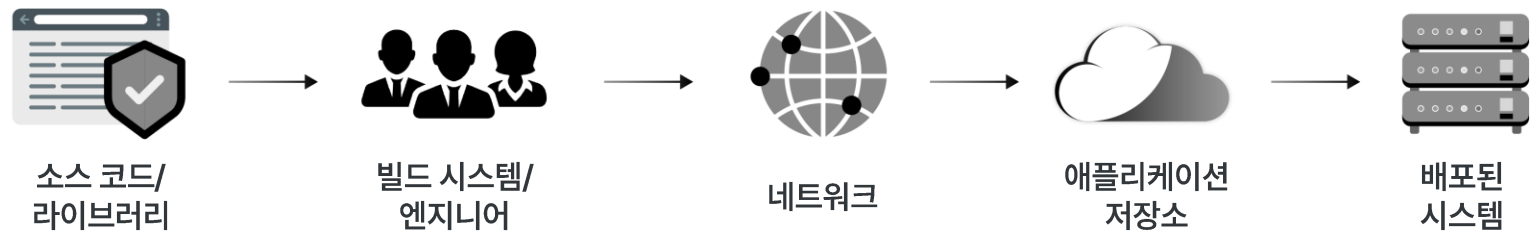
윤종원 팀장

소프트웨어 공급망 (Software Supply Chai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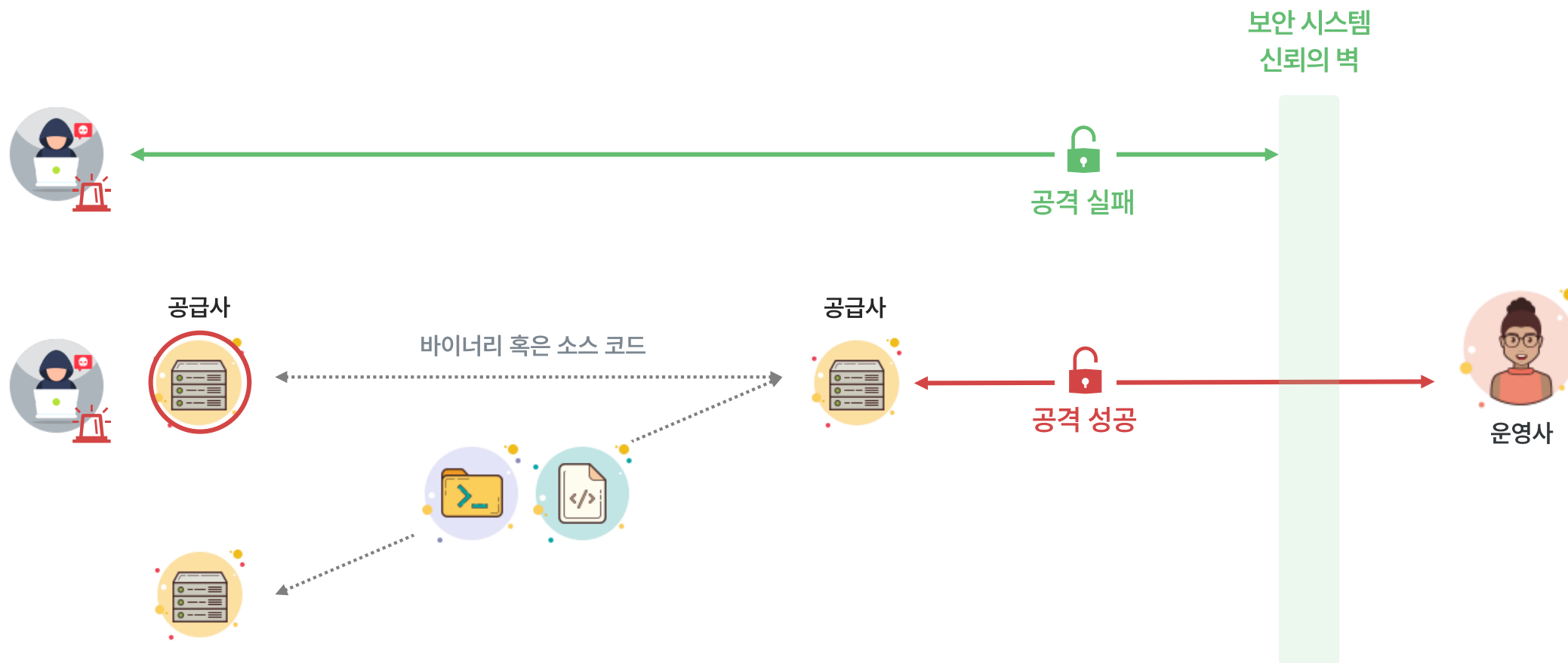
전통적인 공급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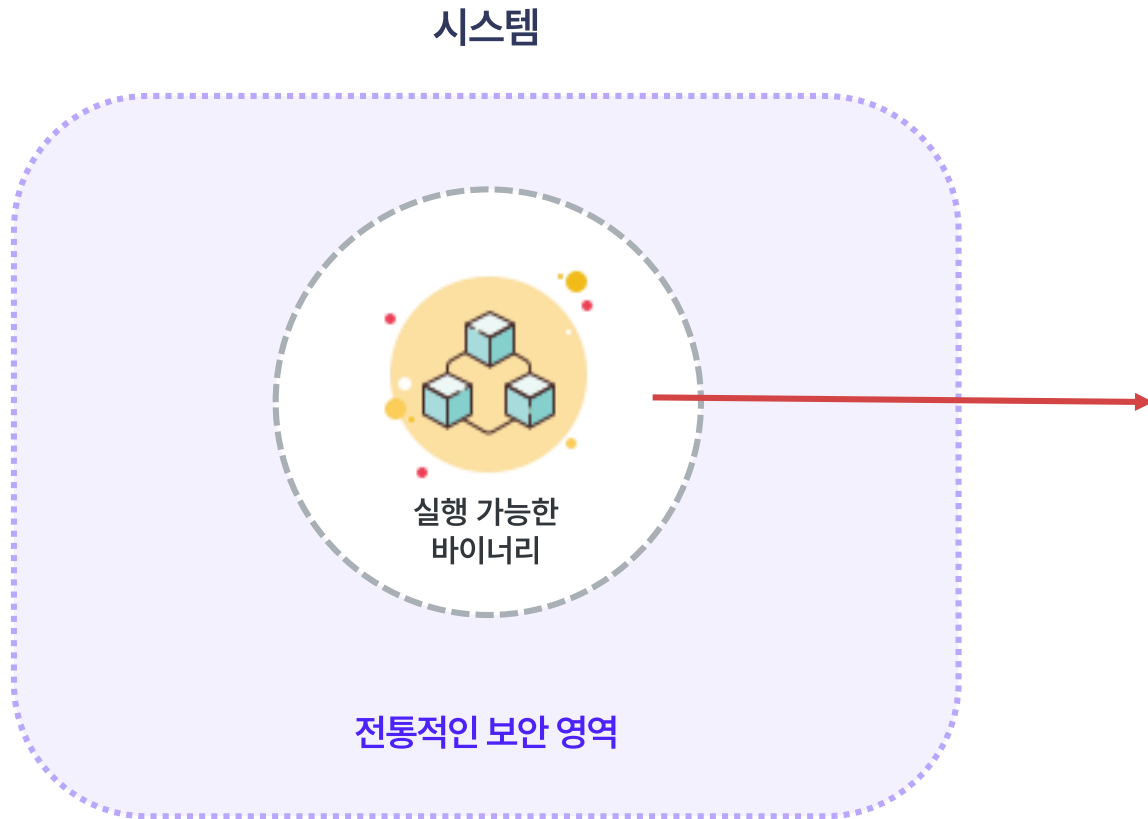


소프트웨어 공급망



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





공급받은 솔루션 내의 실행 파일,

만약 이 안에

취약점이 들어 있다면..?

현실의 벽

- 도입 시 인증정보 확인, 모의 해킹, 보안감사 등 보안 프로세스 적용
- 도입 시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하더라도 유지보수 과정 중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
- 솔루션 패치시마다 보안성 심의를 적용하는 것은 공급사의 큰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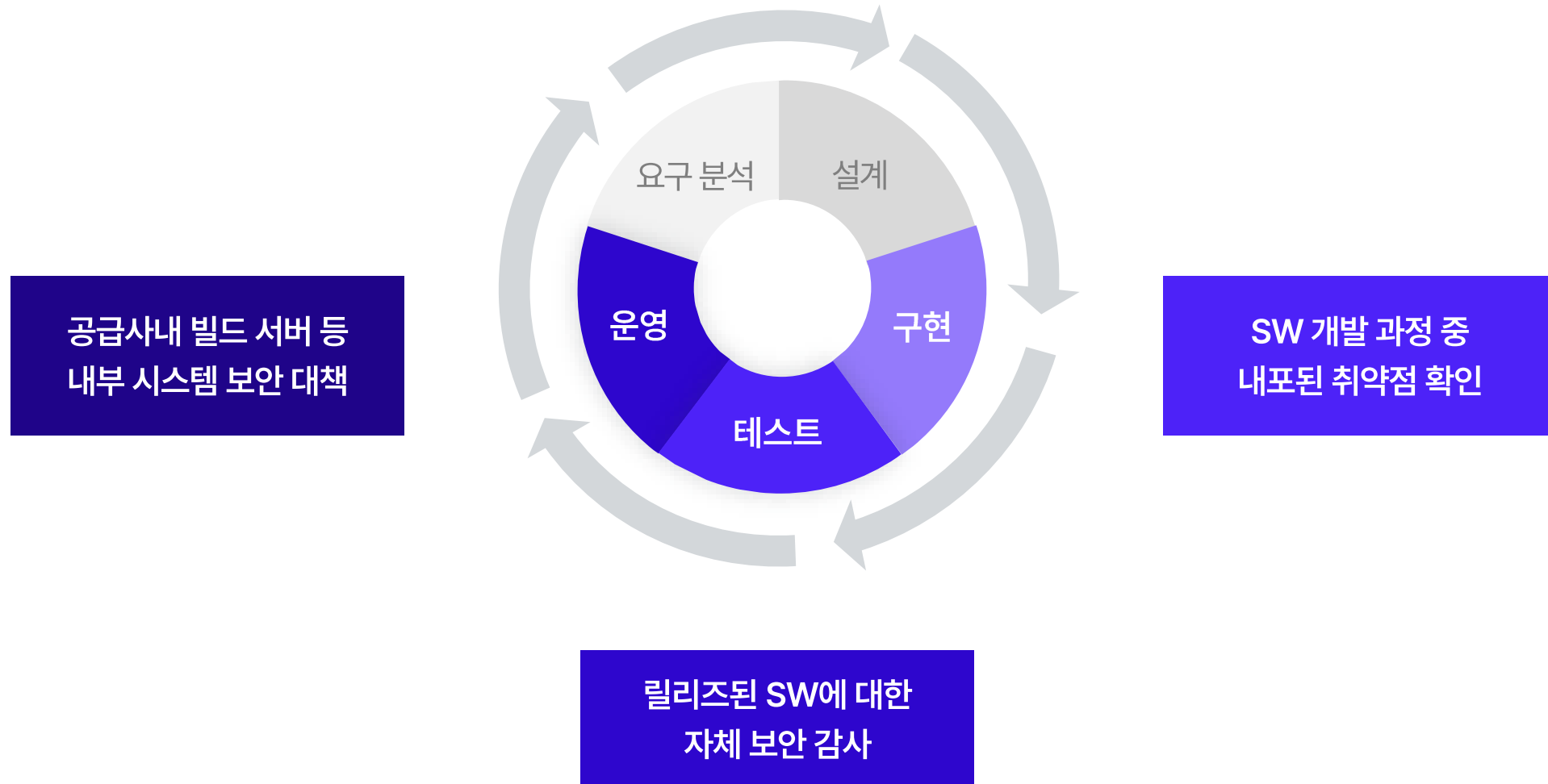
시대 흐름의 변화

- 민간 시장의 자발적 참여에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
- 무결성과 신뢰성, 책임추적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사에게 요구하는 기조

근본적인 해결책

공급사가 생산 과정에서 보안 프로세스를 도입, 관리해야 함

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(SDLC) 와 보안



구분	설계단계	코딩단계	통합단계	베타제품	제품출시
설계과정 결함	1배	5배	10배	15배	30배
코딩과정 결함		1배	10배	20배	30배
통합과정 결함			1배	10배	20배

(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, NIST)

소스코드에 존재할 수 있는 **잠재적인 보안 약점**을 제거



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약점을 진단하고 수정하여 투입되는 비용 절감

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



오픈소스 보안취약점 매년 큰 폭으로 증가

평균 6.6년 이상 된 오픈소스
보안 취약점을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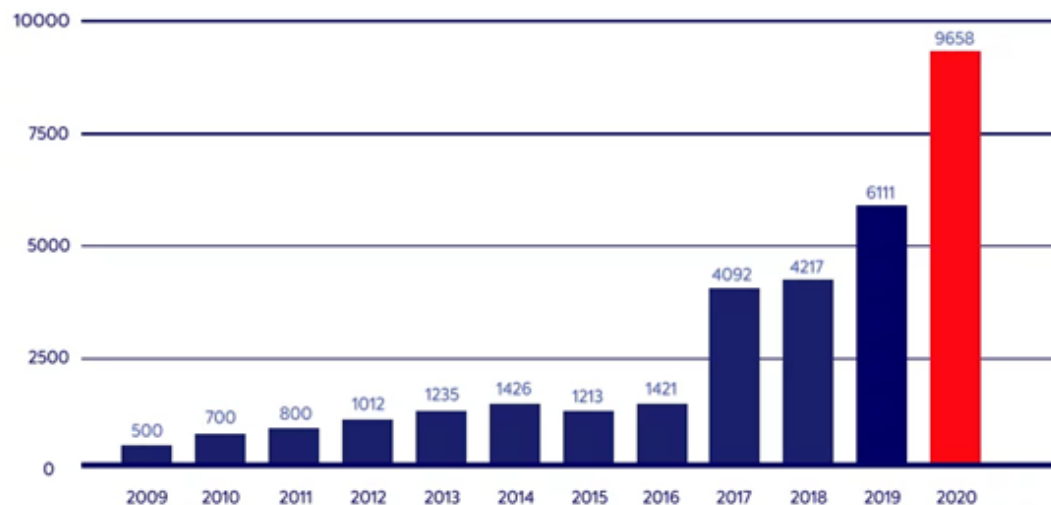


오픈소스 보안취약점 평균 수명 기간

(단위 : 년)

6.6년

Open Source Vulnerabilities per Year: 2009-2020



<신규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발생 추이>

오픈소스 보안취약점 발생 현황:

국내 대다수 기업이 수많은 보안취약점이 존재함에도 방치하는 상황

전세계 Heartbleed 현황, 한국 2위

기업 발견 현황 중,
국내기업 상위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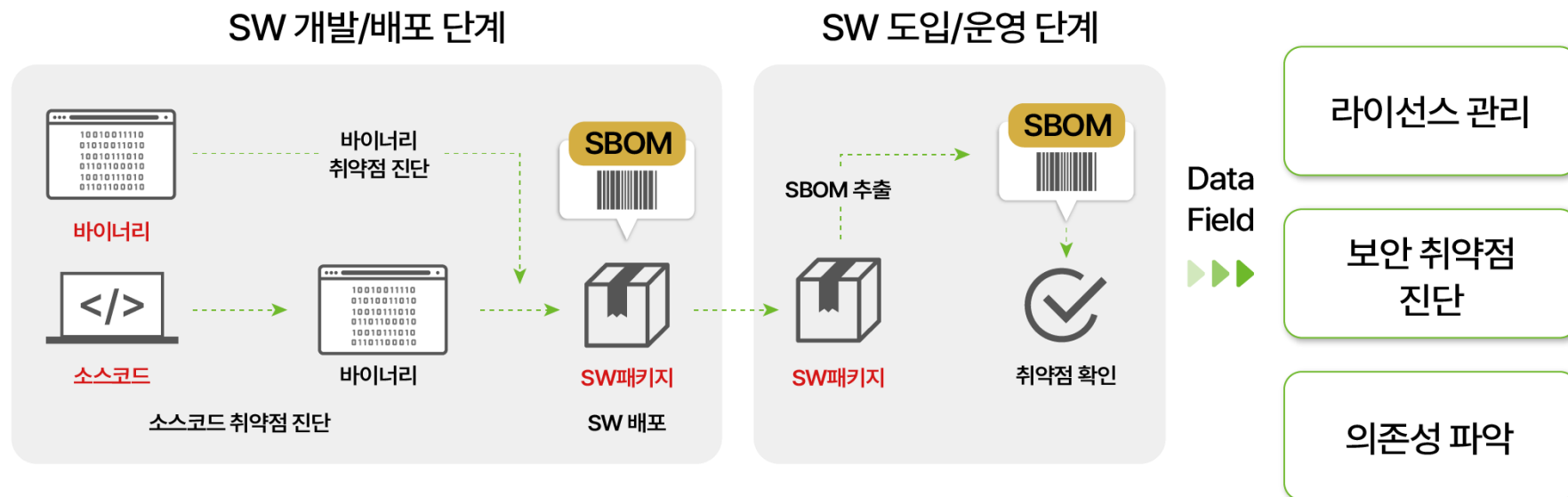
코드베이스 약 43%
10년 이상 된
보안 취약점 보유

10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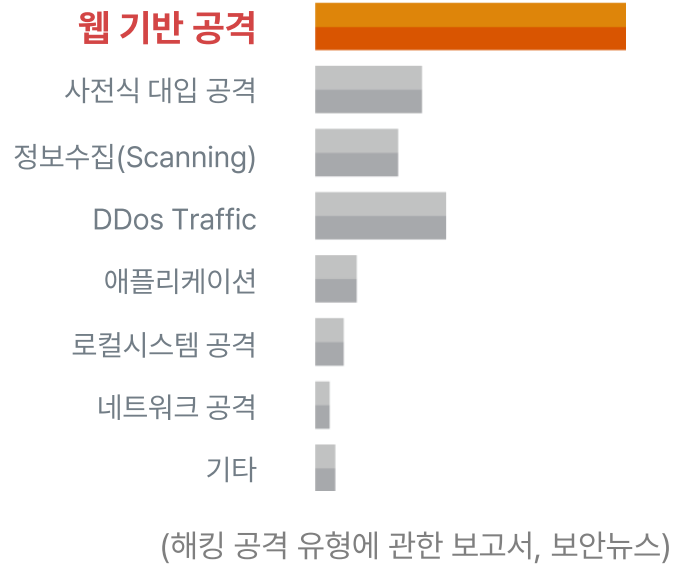
美 바이든 행정부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('21.5.12)

- 바이든 행정부는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
- 21년 초 솔라윈즈 해킹, 미 동부 송유관 파이프라인 공격 등 발생
-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체계 강화
- 또한 **SBOM(Software Bills of Materials)**를 도입해 **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오픈소스나 보안 업데이트 사항을 일일이 명시**하도록 할 것.
- 포장 음식에 성분 재료가 명시되어 있듯, 정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보안 업데이트 최신 버전이며 누락된 사항 및 취약점이 없도록 하기 위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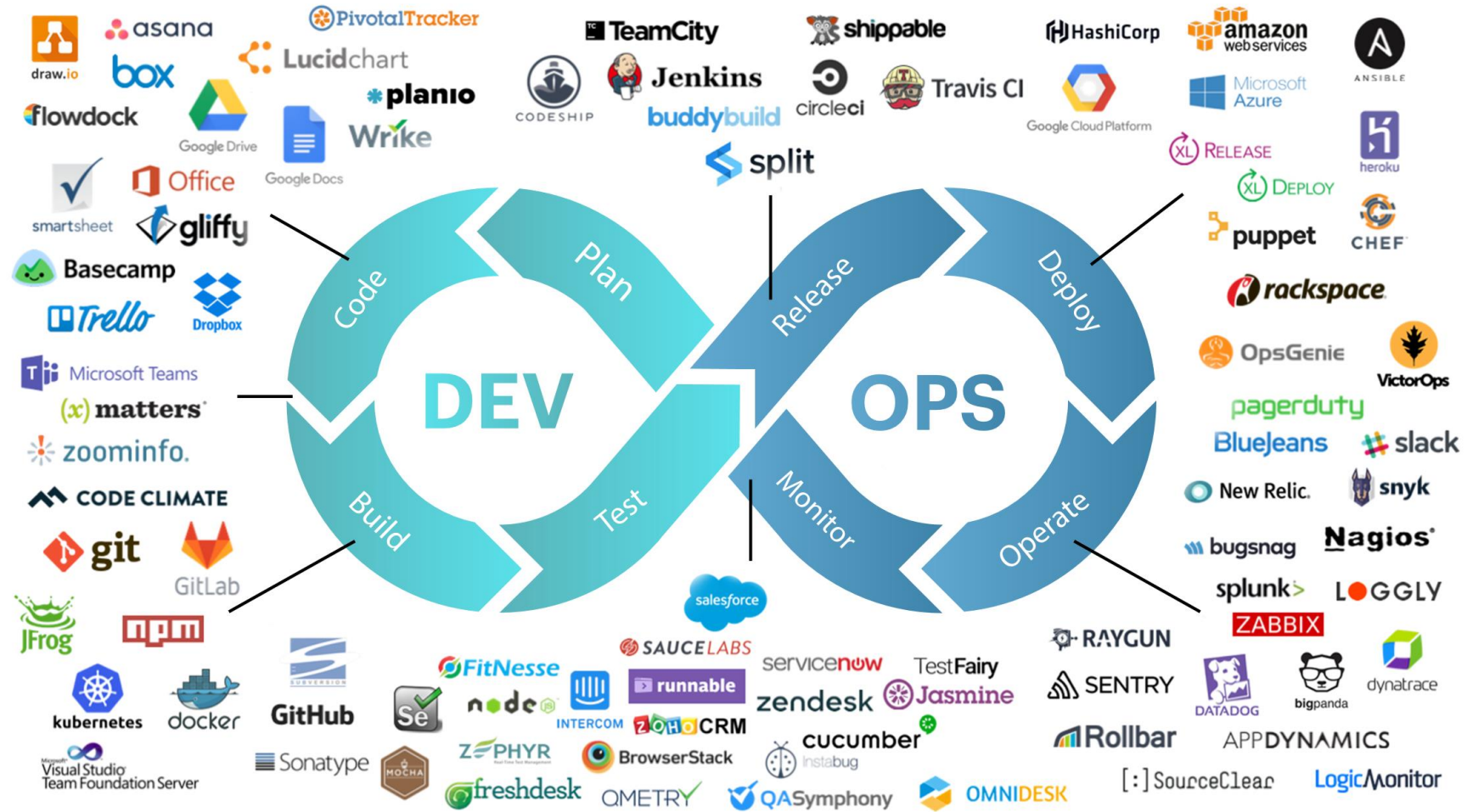
"리눅스 재단 조사, 조직의 78%가 SBOM 생성 및 활용 예정"

전체 해킹 공격 가운데
웹 기반 공격이 **47.2%**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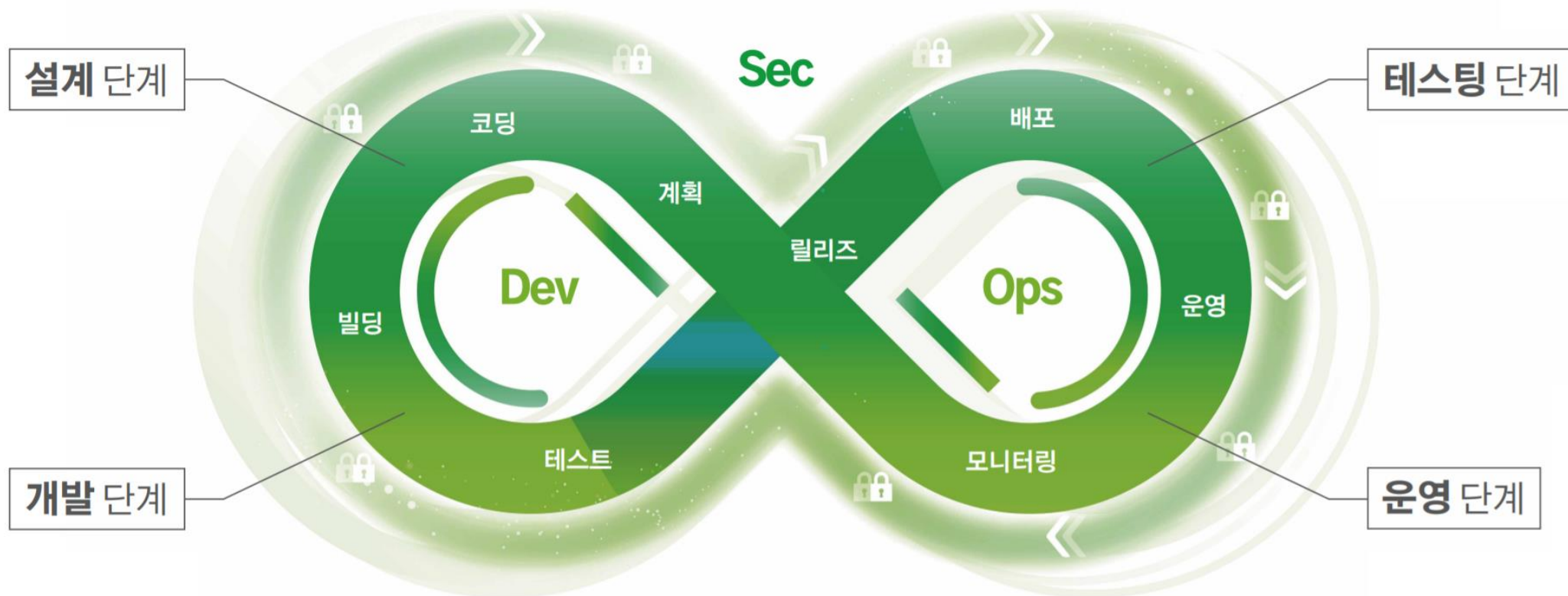


개발 단계 발견하기 힘든 운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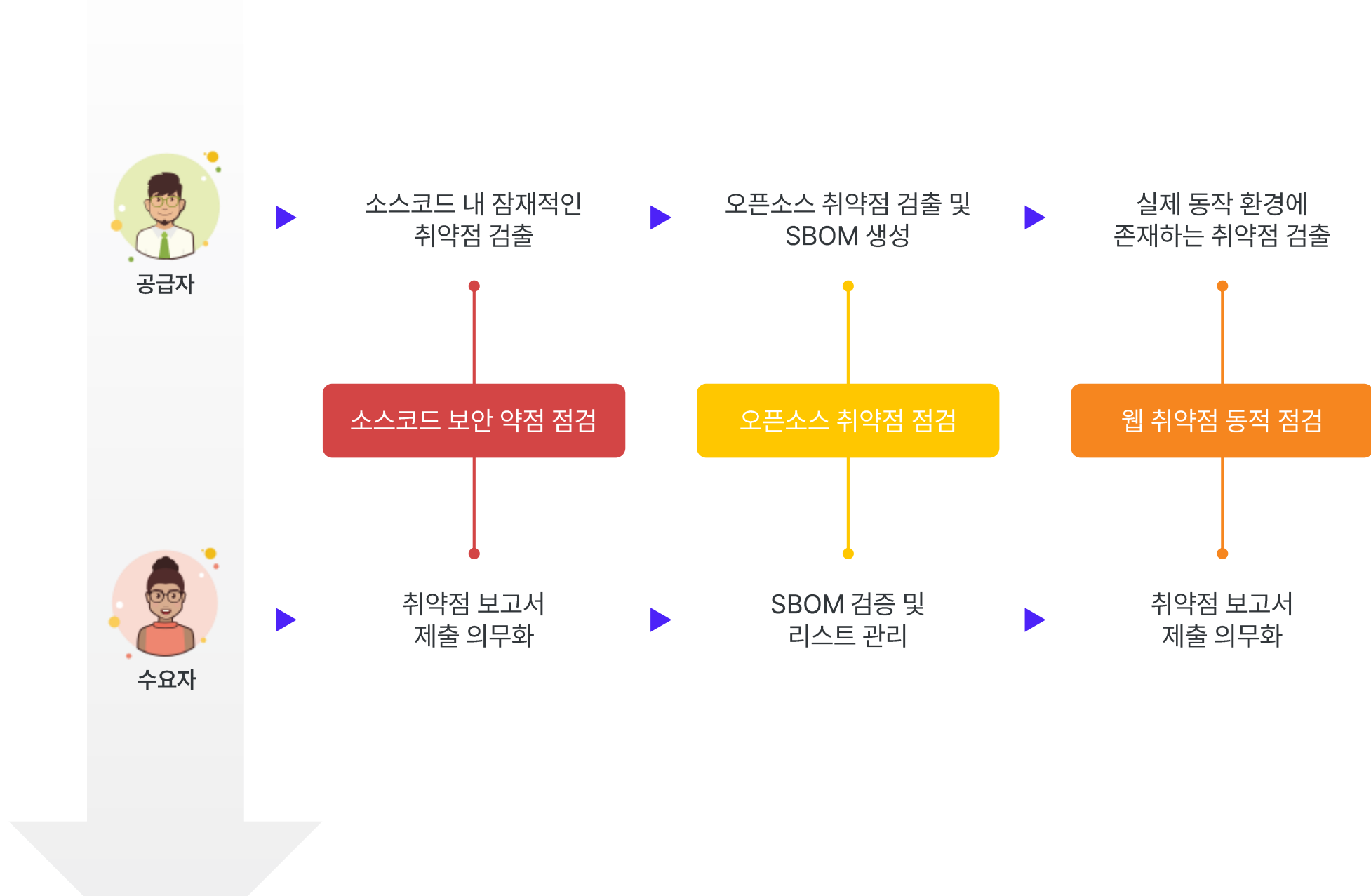
DevOps?



(DevOps tools, Openxcell)







감사합니다.